

# ‘좋았던 시절’의 비극

스티븐 킨의 《시간과 공간의 문화사 1880~1918》

정선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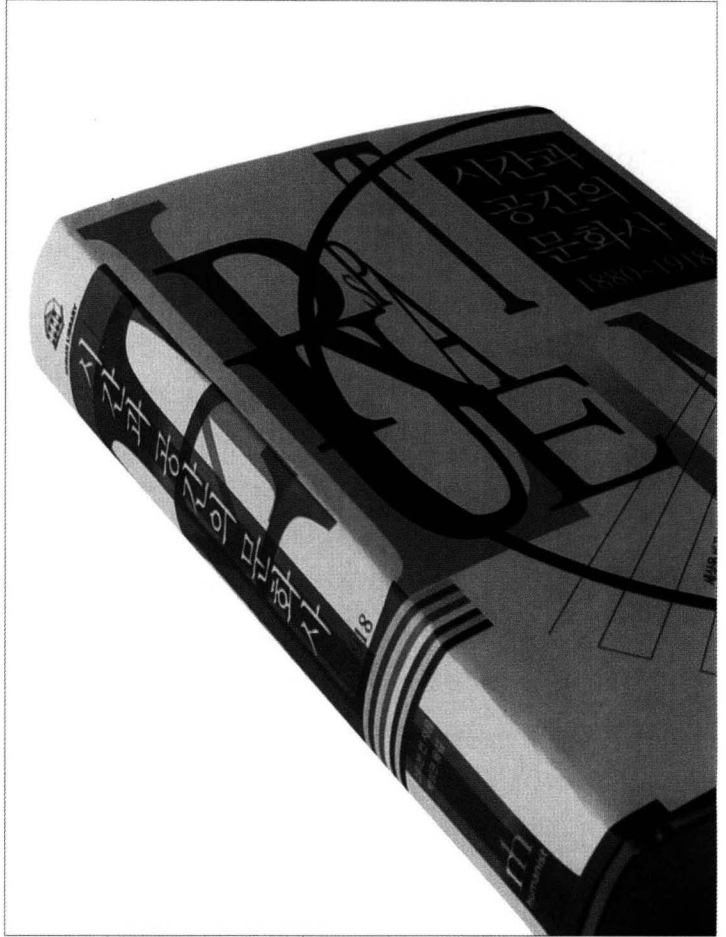
한국 ‘최초의 근대적 잡지’ 〈소년〉 1909년 5월호에 실린 “세계적 지식의 필요”라는 제목의 권두언에서 최남선은 다음과 같이 ‘선언’ 한다.

“세계의 대국大局은 안전眼前에 전개하였도다. 제물포구에 창래漲來하는 파랑波浪은 이미 지중해 물의 염분鹽分이 혼화混和하였고 백두산 밖에 향동響動하는 기적汽笛은 오래 시베리아 바람의 조기燥氣를 전파하였는데 종로 골목에는 사하라 사막의 세사細沙가 묵구자墨軀子의 화저靴底에서 낙하하고 남산 수목은 ‘유로파’ 중원의 탄기炭氣를 백인의 구리口裏로서 흡수하니, 어호於乎 우리 반도도 이미 순수한 한천한지하韓天地下에 있음이 아니로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다. 아득해 보이던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지중해의 물결이 화륜선과 함께 제물포구에 이르고, 시베리아 철도를 달리는 기차의 기적 소리가 건조한 바람을 몰고 오는 세계, 최남선은 종로 거리를 걷는 사람의 구두 아래에서 사하라 사막의 가는 먼지를 발견하고, 남산의 나무들이 들이마시는 공기 속에서 유럽인들의 숨결을 보았던 것이다. 모든 것이 뒤섞이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순수한 한국의 하늘과 땅이 있을 리 만무했다. 이 시기에 이미 최남선은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 또는 ‘동시성의 공간’으로 인지했다.

스티븐 킨의 《시간과 공간의 문화사 1880~1918》을 읽으면서 갑자기 최남선과 일련의 계몽지식인들이 떠오른 것은 문명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의 충격이 어떠했을까를 새삼 되문고 싶었기 때문이었으리라. 볼프강 슈벨 부쉬의 《철도여행의 역사》와 박천홍의 《매혹의 질주, 근대의 횡단》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철도로 대표되는 근대 문명은 동시대인들의 시공간 감각을 철저하게 재편했고, 그들을 시계의 ‘명령’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근대인으로 변신시켰다. 분과 초 단위로 절단된 시간은 ‘새로운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까지 분해하면서 자신의 명령에 복종할 것을 요구했다. 두말 할 필요도 없이 근대적 시간의 등 뒤에는 자본의 욕망과 제국의 힘이 버티고 서 있었다. 타이타닉호의 침몰이 연출한 동시적 드라마는 시간을 압축하고 공간을 무화無化하려는 자본과 제국의 욕망이 도달할 지점을 예견한 한 편의 묵시록이었다. ‘더 빨리, 더 멀리’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근대의 무한 질주는 자본주의가 낳은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아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파국에 도달하고 나서야 인간은 자신의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게 마련인 모양이다. 시간과 공간을 제압하면서 세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통제하려는 자본의 욕망이 몰고 올 비극을 미리 걱정하기에는 속도와 거리의 단축이 주는 매력이 만만치 않았다. 새롭게 발명된 자전거를 타고 교외로 내달리는 소녀의 환한 미소를 떠올려 보라. 감히 신의 이름을 빌려 타이



《시간과 공간의 문화사 1880~1918》

스티븐 킨 지음 | 박성관 옮김 | 휴머니스트 | 766쪽 | 값 30,000원

타닉이라 명명한 호화유람선을 타고 얼음바다를 가로지르던 사람들의 저 당당하고도 행복에 겨운 표정들을 상상해 보라.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유럽을 가로지르는 기차여행은 또 어떠한가. 속도는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고, 그 속도를 타고 횡단하는 바다와 대륙은 인간의 상상력을 한껏 부풀려 놓았다. 무선전신과 전화가 사방에서 웅위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지원을 받아 전 세계의 소식을 실은 신문은 아침 식탁에 놓인 '새로운 성서'였다. 이제 사람들은 신문을 보면서 기도를 드렸고, 자신이 한 나라의 국민이자 세계인임을 확인했다.

1880년에서 1918년에 이르는 시기, 흔히 유럽인들이 '벨 에포크(좋았던 시절)'라 부르는 시기에 태어난 수많은 문명의 이기들은 기존의 시간과 공간을 살해하면서 '암흑의 핵심' 아프리카에서 극지방까지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인간의 꿈도 덩달아 현실화되는 것처럼 보였다. 완강한 경계를 거침없이 가로지르는 수없이 많은 선들을 따라 인간의 욕망도 상상을 훌쩍 뛰어넘는 지점까지 뻗어가고 있었다. 이것은 분명히 불길한 징조였다. 이를 알아챈 사람들, 예컨대 마르셀 푸르스트·제임스 조이스·조셉 콘래드·토마스 만 등은 그들의 작품을 통해 획일적인 시간의 무한질주를 경계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토마스 만이 《마의 산》에서 정확히 진단했듯이 유럽은 좋았던 시절에 이미 '죽음에 이르는 기침'을 토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슈팽글러는 전속력으로 돌진하는 서구의 오만에서 그 몰락을 보았다. 뿐만 아니라 콘래드는 《밀정》이라는 소설에서 세계를 하나의 균질적인 시간으로 묶는 표상인 그리니치천문대를 폭파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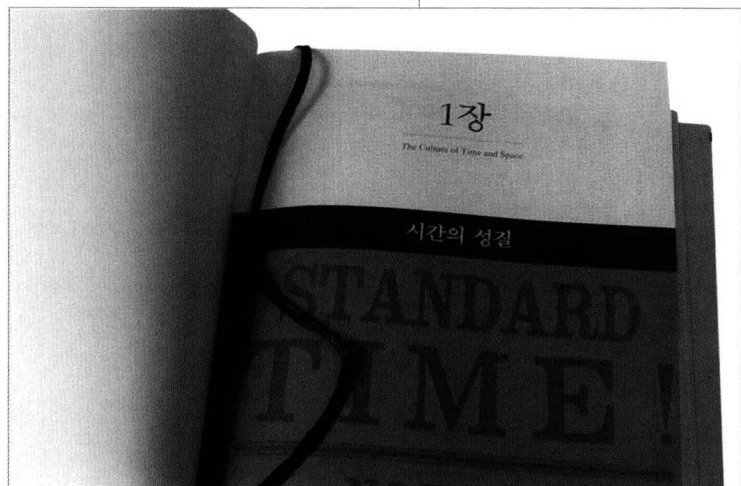
근대적 시공간 형식의 폭력성에 맞서 대결하고자 했던 인물들은 수없이 많다. 철학자 니체와 베르그송이 그러했고, 세잔과 피카소와 칸딘스키가 그러했으며, 음악가 쇤베르크와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그러했다. 스티븐 킴은 이들의 저항 양상을 입체적으로 직조하면서 세기가 바뀌던 무렵의 시간과 공간을 둘러싼 투쟁을 생생하게 그려낸다. 쇤베르크는 폭악이 합리성의 정원에서 폭발하고, 세잔의 붓은 균질적인 시공간감각이 얼마나 비인간적인가를 묘사한다. 그리피스를 위시한 영화감독들과 사진작가들은 오로지 앞을 보고 내딛는 시간을 비웃기라도 하듯 뒤돌고 되돌린다. 그리고 푸르스트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조이스는 《율리시즈》를 통하여 공적인 시간 흐름과 공간 형식을 정면으로 비판한다. 시간은 한없이 늘어질 수 있고, 현재는 얼마든지 두터워질 수 있으며, 공간 또한 얼마든지 재구성될 수 있다. 그러나 유럽은 오만했다. 그들이 창안한 시간과 공간이, 다시 말해 시간과 공간을 전유하려는 '제국의 프로젝트'가 그 파국을 고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해서였다.

시간과 공간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형식이다. 그런데 획일적이고 균질적인 근대적 시간은 '아프리카를 뜯어먹고' '세계를 삼키는' 폭력의 화신이었다. 폭력의 화신은 '동시성'을 요구한다. 모든 '비동시적인 것들'은 제압과 살해의 대상이다.

스티븐 킴이 이 책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것도 근대적 시공간 형식의 가공할 폭력성이었을 터이다. 문학·철학·과학·건축·사진·영화·미술·무용·음악 등 무수하게 잘린 장르분류를 가로지르며 '좋았던 시절'의 비극적 성격을 드러내는 그의 필치는 참으로 매력적이다. 물론 아쉬움은 남는다. 이를테면 '비동시성'의 세계에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풍경을 볼 수 없다는 것이 그러하다. 그러나 아쉬움은 독자들이 채워야 할 몫이다. 이제 우리는 저자의 역동적이고도 매력적인 문체와 흠잡을 데 없는 깔끔한 번역이 단연 돋보이는 이 책을 길라잡이로 삼아 시간과 공간의 바다에 더 깊이 추를 내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김민**

● 이 글을 쓴 정선태는

1963년 전북 남원에서 태어났으며,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현재 한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겸임교수로 있으면서 '연구공간 수유+너머'에서 공부하고 있다. 저서로는 《개화기 신문논설의 서사수용 양상》 《심연을 탐사하는 고래의 눈》이 있으며, 번역서로 《동양적 근대의 창출》 《일본문학의 근대와 반근대》 《가네코 후미코-식민지 조선을 사랑한 일본제국의 아나키스트》 《일본어의 근대: 근대 국민국가와 '국어'의 발견》 등이 있다.



# 특별한 캐릭터들의 전언傳言, “삶은 환상을 더함으로써 완성된다”

개리 블랙우드의 《셰익스피어 스파이》

김서정

《셰익스피어 스파이》라는 흥미로운 제목의 책에 대한 서평의뢰가 왔다. 셰익스피어가 스파이란 말일까? 아니면 어떤 스파이가 셰익스피어를 염탐하는 얘기일까? 추리물일까? 아니면 시간을 넘나드는 판타지일까? 이런 호기심, 거기다 청탁자의 사근사근한 청탁태도에 나는 흔쾌히 오케이를 했다.

그러나 날아온 책을 보니, 이빨싸! 세 권짜리 시리즈가 아닌가! 게다가 분량도 만만치 않아 3권은 거의 400 쪽이다. 청탁자는 시리즈물이라고 하면 거절할까봐 말을 못했노라고 고백한다. 기가 막히지만, 할 수 없다. 쓰겠다고 했으니 부지런히 읽고 써야지.

“나는 날 낳아준 엄마와 아빠를 전혀 모른다. 그저 아는 거라곤, 엄마가 내가 태어난 해, 즉 엘리자베스 여왕 치세 29년째인 1587년에 돌아가셨다는 것뿐.”

이렇게 시작되는 제1권 ‘위지와 캐릭터리’를 펼쳐들고 읽어나가면서 나는 어느덧 정신없이 이야기에 빨려들었다. 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치세 29년째인 1587년’이라는

숫자부터 나오는 게 은근히 역사 공부를 시키려는 의도가 배어 있는 것 같아 첫 문단부터 걸끄럽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책은 부지런히 각주까지 달면서 영국의 옛날 책, 16세기 영국의 극단과 배우와 극작가들, 햄릿을 비롯한 셰익스피어 희곡의 대사들을 종횡무진 써먹는다. 그렇지, 결국은 영국 이야기로군. 우리가 이런 것까지 시시콜콜 알아야 할까? 영국 사람들이야 자기 조상들 이야기고 자기들 문화의 뿌리인 옛 풍습과 예술에 관련된 사항들이 들어 있으니 재미있겠지만, 아니, 이 작가는 영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다. 그렇다면 자기들에게는 없는 전통과 역사에 대한 동경일까? 어쨌든 우리에게 그리 큰 공감이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소재는 아닌 듯하다.

이야기 자체도 그다지 새로운 것은 없다. 고아인 주인공이 혹독한 시련을 극복하고 성장, 성공하는 동화의 한 전형을 충실히 따를 뿐이다. 위지라는 시골뜨기 고아소년이 어느 고약한 시골목사의 조수로 들어가 일종의 암호 속기술인 ‘캐릭터리’를 배운다. 능숙해진 캐릭터리로 이웃 마을 목사들의 설교를 베껴다(그러니까 훔쳐다) 주인에게 갖다 바치면서 살던 중 위지는 더욱 무시무시한 새 주인에게 팔려 런던으로 간다. 그의 임무는 셰익스피어가 이끄는 체임벌린 극단의 공연을 보면서 대사를 고스란히 베끼는 일. 그러나 그 일은 그의 안에 연극에의 정열을 불러일으킨다. 대사를 적어 놓은 수첩을 잃어버리고는 다시 찾으려고 하다가 얼떨결에 그 극단의 견습생으로 들어가는 위지. 셰익스피어의 인기 연극을 공연해 돈을 벌려는 새 주인은 집요하게 그에게 대본을 훔칠 것을 강요하는데, 그새 극단 사람들과 가족처럼 정이 들어버린 위지는 목숨을 걸고 대본을 지킨다. 결국 원고 몽치를 훔쳐 달아나던 새 주인은 뒤쫓던 극단 배우와의 결투 끝에 죽고, 위지는 자유의 몸이 된다.



《셰익스피어 스파이》(전3권)

개리 블랙우드 지음 | 오선화 옮김 | 종이나라 | 각권 350쪽 내외 | 값 1권 9,000원·2,3권 10,000원

미국 학교 도서관 저널 최고의 책, 도서관협회 청소년을 위한 최고의 책 같은 화려한 수상 경력도 1권에 대한 나의 독후감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거야 그쪽 사정이지, 싶은 것이다. 계속 이렇다면 아마도 서평 쓰기를 포기해야 하리라.

그러나 나는 너무 성급했다. 2권 '점술가의 예언'은 재미있었다. 긴박한 가운데도 여유 있고, 엄숙한가 하면 유머가 넘치고, 놀라우면서도 감동적인 사건의 연속이었다. 1권에서, 묘사는 지나치게 신중하고 상세하며, 트릭은 별로 놀랍지 않고, 캐릭터들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어설피게 떠난다고 내렸던 평기는, 2권을 위한 준비과정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라고 바뀔 정도였다. 페스트를 피해 시골도시를 다니면서 공연을 하는 힘든 떠돌이 극단 생활을 하는 위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 엄격한 자기단련과 성장의 모습을 보여준다. 자신의 아버지라고 애매하게 주장하는, 어쩌면 사기꾼일지도 모르는 정체불명의 사내에게 위지가 끝까지 바치는 믿음과 애정은 각별히 읽는 이의 마음을 친다. 세상은 위지에게 가혹할 정도로 불공평했지만, 그는 좌절한 채 불평만 하거나 복수하려 들지 않는다.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다", "지난 몇 달 동안 겪었던 모든 시련과 고난을 통해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금은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위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 그리하여 이야기가 끝날 즈음 이 아이는 아주 특별한 캐릭터로 읽는 이에게 각인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위지와 함께 이 이야기의 큰 축이 되는 캐릭터는 셰익스피어이다. 2권부터 극단의 대표로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셰익스피어는, 역사적 사료 위에 상상력을 덧입히는 소설 기법의 한 좋은 표본을 보여주는 듯하다. 그는 팔이 부러져 원고를 못 쓰는 핑계가 생긴 것을 기뻐하는 작가로, 일에 정신이 팔려 가족에게는 소홀한 가장으로, 딸에게 찢절매는 아버지로서, 끝없이 딸뽕부리는 동생을 챙기는 형으로, 그렇게 다양한 얼굴을 보여 준다. 셰익스피어라는 액자 속 인물이 걸어 내려와 실수도 하고 약점도 드러내는 보통 인간으로 우리 앞에 살아나는 모습을 보는 재미는 참으로 각별하다.

그런 실제 인물인 셰익스피어와 완전히 허구의 인물인 위지가 힘을 합쳐 희곡을 한 편 완성해 낸다는 설정은, 이 책에 나오는 표현대로, 그야말로 '멋진 거짓말'이다. '엘리자베스 치세 29년, 1587년' 운운하며 견고한 역사적 사실을 밝히겠다는 듯 시작한 이야기를 그렇게 통쾌하고 신나는 거짓말로 끝맺으면서 작가는 무엇을 의도했을까? 아마도 삶의 환상을 더함으로써 완성된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대본을 쓰는 작가건, 무대 위의 배우건, 무대 아래의 관객이건, 결국 우리는 모두 되고 싶은 사람이 되어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꿈을 갖고 있다. 그 꿈을 얼마나 이루느냐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애쓰느냐에 달려 있다는 소박한 진실을, 사실과 상상을 교묘하게 엮은 이 이야기는 묵직하게 알려준다. 또 하나, 책은 어떻게 읽게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읽어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한문**

● **이 글을 쓴 김서정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문예창작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독일 뮌헨대학에서 수학했다. 현재 숙명여대 겸임교수로 있으며 동화작가, 평론가, 번역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평론집 《어린이문학 만세》 《멋진 판타지》, 동화책과 그림책 《민거나 말거나 동물 이야기》 《용감한 꼬마 생쥐》 《나의 사직동》 등이 있다. 《미오 나의 미오》 《일주일 내내 토요일》 등을 번역했다.

